



**예수병원,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의료지원**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IFF) 기간 동안 예수병원 의료진 안전부스를 설치해 영화제 관계자 및 방문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한다.

예수병원은 지난해와 달리 곳곳에 설치된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메인 행사장에 전담 스태프와 전용 구급차를 지원하고 영화제 기간 동안 건강상담과 구급약 제공,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본원으로 후송하는 의료체계를 마련했다.

신충식 병원장은 "이번 영화제는 COVID-19 이후 관람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예수병원도 영화제 기간 동안 큰 사고 없이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영아 기자



**농협 진안군지부,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NH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변성섭)는 27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춘섭)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변성섭 지부장은 "진안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에 동참하여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섭 이사장은 "여러 해 동안 장학금 후원과 함께 고향사랑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군, 제과 제빵 정원디자이너 등 직업교육 개강**

순창군이 27일 군민들의 개인 역량을 개발하고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평생 직업교육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전남과학대학교에서 위탁하여 진행되며, 교육 과목은 정원디자이너, 제과제빵, 커피 바리스타2급, 정리수납 전문가 2급, 플라워디자이너 2급 과정 등 총 5개의 과정이 개설됐다.

교육 장소는 민속마을 내 위치한 순창군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며, 전문 조리기구가 요구되는 제과제빵 과정과 커피머신이 필요한 커피바리스타 과정은 전남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경찰, 교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점검 활동**

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 여성청소년계(자치경찰 사무)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을 위해 27일부터 지역 학교와 협조해 교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활동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학교 내 화장실, 기숙사, 샤워실, 탈의실 등에 대해 전파탐지형 및 렌즈형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촬영 예방 홍보 스티커 부착 등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또한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로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작동원리, 육안 식별 방법 등을 설명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본사내방**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작은 일에 함께 할 때 평화는 시작된다”**

**IWPG 글로벌 12국, 4·26 ‘세계여성평화의 날’ 4주년 기념행사**

(세계여성평화그룹 글로벌 12국(IWPG, 글로벌국장 여미현)은 4월 26일 ‘세계여성평화의 날’ 4주년을 맞아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글로벌 여성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제자 박혜나 대표는 “베트남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오게 됐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후대에 평화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IWPG의 활동에 감동을 받아 다문화 해외이주 여성들에게 홍보하고 함께 할 것을 권유했다”며, “끊임

IWPG 본부(대표 윤현숙)가 주최하고 IWPG 글로벌 12국 대한민국 지부연합(전주·익산·군산·정읍)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19년 4월 26일 전 세계 여성들이 연대하여 전쟁으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후대에 평화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전쟁종식 평화실현’을 기원으로 ‘세계여성평화의 날’로 제정됐다.

평화를 사랑하는 300여 명의 여성들이 모인 이번 행사는 여미현 글로벌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부 전 총장인 사무총장의 ‘세계여성평화의 날’ 경과보고, 윤현숙 대표의 기념사, 4·26 활동영상, 몽골 국회의원을 역임한 부대 문화요원 ‘몽골 모성영예훈장 어머니 협회’ 대표와 라미아 엘 에르니 기술교육부 전 장관(예전 평화학교 설립자)의 축사를 영상으로 시청했다. 이어 군산 베트남 이주 여성협의회 박혜나 대표와 고창지역관광협의회 강영수 회장의 발제 후 윤현숙 대표의 ‘세계여성평화 선언문’이 선포되었다. 이후 이 행사에 참여한 300여 명의 회원들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지지 및 추구를 위한 퍼포먼스’를 한마음으로 진행했다.

윤현숙 대표는 기념사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국제사회에서의 제도적인 접근과 개인과 시민사회에서의 교육과 문화적 측면,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핵심요소들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지지와 촉구, 평화교육, 그리고 여성의 연대라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없던 평화 활동과 믿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평화의 메시지가 울림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IWPG의 협력단체인 HWPL에서 제안하는 DPCW 10조 38항이 주는 의미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 강영수 회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의 평화를 외쳤지만 지금까지 평화의 세상은 유지하지 못했다. 평화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에 함께 할 때 평화는 시작된다”며 “우리가 평화를 꿈꾸는 만큼 평화는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것이다. 지금 나의 작은 선택과 용기 있는 행동이 전쟁과 분쟁을 멈출 수 있다. 새로운 국제법 제정에 DPCW 10조 38항을 지지 촉구하자”고 전했다.

이번 평화 퍼포먼스는 전쟁으로 총소리가 울릴 때 여성들이 보라색 우산으로 총알을 막고 전쟁을 종식할 평화의 답은 ‘DPCW 10조 38항’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손으로 평화를 이루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한편, IWPG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글로벌 소총국(DGC)에 등록되어 있는 세계적인 여성 NGO로서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10개의 지부와 500여 개의 협력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또한 DPCW 지지와 촉구 활동, 여성평화교육, 전 세계 여성평화 네트워크, 평화문화 전파 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김제시 엄지식품, 다자녀가정에 후원 물품 기탁**

김제시 다자녀가정 행복드림 매칭사업에 참여 중인 (주)엄지식품(대표 마영모)에서 27일 김제시에 후원 물품을 기탁하였다.

다자녀 행복드림 매칭후원 사업은 지역사회 공헌과 저출산 극복에 뜻이 있는 업체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다자녀가정에 1년간 매월 10만원씩 현금 또는 현물을 후원하는 저출산 극복 민·관협력 시책사업으로 올해는 14개 업체가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이번 후원은 (주)엄지식품에서 생산된 500만원 상당의 볶음밥, 만두 등의 식품으로 기탁된 후원 물품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관내 다자녀가정 25세대에 2회에 나누어 전달될 예정이다.

마영모 엄지식품대표는 “다자녀 가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함께 나누고자 이번 후원 물품을 전달하였다”고 전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김명희 전북대병원 수간호사, 발전후원금 기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27일 간호부 김명희 수간호사가 전북대학교병원발전후원회에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은 본관 3층 은고을홀에서 유희철 병원장과 김진우 사무국장, 김경희 간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명희 수간호사는 “오래전부터 항상 병원 발전에 보탬이 되고 동참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그마음을 실천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병원 발전후원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영아 기자



**전주시재향군인회, 회부지도방문 실시**

전주시재향군인회(회장 김용덕)는 27일 향군회관 사무국에서 전북도회로부터 ‘2023년도 회부 지도 방문’을 진행했다.

회부지도는 수석회부장(김범준), 여성회장(홍순수)이 함께 시회 업무보고와 2023년도 회부지도 후속조치와 분회 감사에 대비한 회부살대를 처·부장에 의한 분야별(조직, 안보, 행정, 회계)로 꼼꼼하게 점검·지도를 받았다.

백상록 도회장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조직 문화 창출, 이것이 곧 우리 향군의 미래”라며 강조하고 전주시 앞장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남원시보건소, 행복 높이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장애인 단체(지역발달장애 인복지협회, 농이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하는 ‘행복 높이 장애인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교실은 지난 4월 5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발달장애인은 체중조절을 위한 비만 예방 건강 체조 및 체성분 검사와 심신 안정을 위한 기공 체조, 미술 치료, 약물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농이인은 구강관리법 교육과 치매 예방교육, 낙상·우울증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시각장애인은 신나는 건강체조 등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남원=김기우 기자

**북전주농협, 시티장례문화원·그랜드자동차운전학원 협약 체결**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27일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의 장례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전주 시티장례문화원·그랜드자동차운전전문학원(원장 이광웅)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시티장례문화원은 북전주농협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에 대해 시티장례문화원 이용 시 각종 할인 및 무료서비스 등 특별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그랜드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1회 무료 재시험, 운전연수 20% 할인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협력관계를 통한 상호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상호협력 협약체결로 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와 각종 지원혜택으로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전주농협은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 병원 및 장례식장 등과 상호협력 협약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병원 5개소(전주병원, 대치병원, 전주교과병원, 마음편한요양병원, 행복나리아양병원)와 장례식장 5개소(금성장례식장, 대송장례식장, 온고을장례식장, 효자장례타운, 전주교과병원 장례식장) 등과 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김영태 기자



**완산의용소방대연합회, 가족한마당 행사 개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27일 2023년 전주완산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 및 가족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7일 ‘완산생활체육공원’ 야외 무대르 통한 행사는 전주시의 이천지킴이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전주완산의용소방대원의 소방기술 연마를 통한 재난 대비 역할 능력 강화와 대원 상호 간 소통, 화합을 통한 조직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재재, 김희수 최형열, 송승용 전라북도의회원과 최명철 김경평 전주시의원, 윤정순 도 연합회장, 김재문 도연합회 부회장 윤방섭 전주시 복지재단 이사장 최용호 전 연합회장과 김정수 전주완산소방서장, 각 시·군 연합회장 등 각급 유관 기관 단체장과 의용소방대원 및 가족, 소방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영아 기자



**전북신보·문장건설, 8900만원 기부출연 협약**

전북신보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전북신보)은 27일 (주)문장건설(이하 ‘문장건설’)과 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포레나 전주 예코시티 관매시설 대규모 점포 개설과 관련해 지역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문장건설이 전북신보에 8900만 원을 기부출연 하는 것으로 전북신보는 전주시에 함께 코로나19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등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을 위해 마련됐다.

민간기업의 기부 출연의 경우, 2021년 기획재정부 공익목적 기부금 고시 지정에 따라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출연기업에는 사회적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손금인입을 통한 세제효과도 있다.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아 기자